

소월 시에서 잘못 읽은 〈어그점〉과 〈잔즈르는 수심가〉

권영민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김소월의 시를 읽다 보면 우리가 일상 생활 속에서 별로 사용하지 않는 말들이 많다. 자주 사용하지 않으니 그 말의 쓰임에도 익숙하지 않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데도 의견이 분분하다. 소월의 시어와 평안도 방언과의 관계를 밝힌 이기문 교수의 「소월 시의 언어에 대하여」(1982)가 발표된 후 소월 시에서 그 의미가 모호하게 처리되었던 여러 단어들의 명확한 용례와 의미를 알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말들이 많다. 이같은 난해 어구들은 그 자체의 어원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소월 시가 발표되었던 당시의 부정확한 발음이나 잘못된 표기로 인해 그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도 상당 수 포함되어 있다.

소월의 첫 시집 『진달래꽃』(1926)에 수록된 작품 가운데 일반 독자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부부(夫婦)」라는 시가 있다. 그 전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오오 안해여, 나의사랑!
하늘이 무어준 짝이라고
밋고사름이 맛당치안이한가.

아직다시그러라, 안그러라?
 이상하고 별납은 사람의맘,
 저물나라, 참인지, 거짓인지?
 情分(정분)으로얼근 째두몸이라면.
 서로 어그점인들 쏘잇스라.
 限平生(한평생)이라도 半百年(반백년)
 못사는이人生(인생)에!
 緣分(연분)의긴실이 그무엇이라?
 나는 말하려노라, 아무러나,
 죽어서도 한곳에 무치더라.

이 시는 부부의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평범하게 노래하고 있다. 부부를 하늘이 맺어준 짝이라고 하였고, 한평생 살아가는 그 연분으로 죽어서도 한 곳에 묻힌다고 말하고 있다. <무어준>(2행)과 같은 말은 <서로 관계를 맺어준다>는 뜻의 평안도 방언으로 알려져 있다. <별납은>(5행)은 <유별나다>는 뜻이지만 발음과 표기 때문에 낯설게 느껴진다. 이 시 가운데에 제8행에 해당하는 <서로 어그점인들 쏘잇스라.>에서 <어그점>이라는 말은 그 어원과 뜻이 불분명하다. 김재홍 교수가 펴낸 『한국현대시 시어사전』에는 이 단어가 <어긋남>(753면)의 방언이라고 설명되어 있지만, 어느 지방의 방언인지 밝혀놓지 않고 있다. 소월 시의 어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시어의 언어학적인 설명을 시도했던 오하근 교수의 『정본 김소월 전집』(집문당, 1995, 90면)이나 소월 시의 정본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김용직 교수의 『김소월전집』(서울대출판부, 1996, 110면)에는 모두 이 단어의 원형을 <어그적시다>로 표시하였으며, 그 의미를 <멋없이 교만하게 굴거나 함부로 으스대다>로 설명하고 있다. 모두가 어디에 근거하여 이 같은 해석을 내린 것인지 알 수 없는 데다가, 『한국현대시 시어사전』과도 그 의미 해석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오하근 교수가 제시한 <어그적시다>라는 말은 『국어대사전』(이희승)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다. 그 용례도 일상의 언어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물론 〈어그점〉이라는 말도 마찬가지다. 북한에서 나온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에는 〈어그적시다〉라는 말이 있는데, 오 교수가 제시한 의미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조선말대사전』에서는 〈어그적시다〉를 〈엇나가다〉와 동의어로 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그 뜻은 〈어긋나게 삐투로 나가다〉로 표시하고 있다. 〈멋없이 교만하게 굴거나 함부로 으스대다〉라고 밝힌 오 교수의 설명과는 사뭇 다르다. 이 같은 의미 해석의 차이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나는 북한 『조선말대사전』의 뜻풀이가 이 시어의 해석에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멋없이 교만하게 굴거나 함부로 으스대다〉라는 뜻보다는 〈어긋나게 삐투로 나가다〉라는 뜻으로 읽을 때 시의 의미가 분명히 살아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어깃장 놓다〉, 〈어깃장 대다〉와 같은 말이 이 단어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시인 고은의 유명한 시집 『만인보』에 수록된 시 작품 가운데 〈젓정지 호박밭〉(『만인보』 3, 18면)을 보면 〈중매 들어올 때마다/ 어느 귀신이 어깃장 놓는지/혼사마다 틀어지고 마는 덕순이〉라는 구절이 나온다. 여기서 〈어깃장 놓다〉는 〈어그러지게 뺨대다〉의 의미로 읽을 수 있다. 서로 어긋나게 만든다는 뜻으로 쓰이는 〈어깃장〉이라는 말이 소월 시의 〈어그점〉이라는 어구와 같은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얼마든지 가정할 수 있다.

기왕 소월 시의 언어 문제가 나왔으니 비슷한 사례를 하나만 더 들어보기로 하자. 소월이 쓴 시 작품 가운데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문우 월탄 박종화(朴鍾和) 선생을 생각하며 쓴 「고만두폴 노래를 가져 月灘(월탄)에게 드립니다」라는 시가 있다. 이 시는 잡지 『가면(假面)』 1926년 7월호에 발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원문은 김억이 펴낸 시집 『소월 시초(素月詩抄)』(박문서관, 1939)에 수록되어 있다. 이 작품의 제1부를 옮겨 보기로 한다.

즌퍼리의 물가에

우거진 고만두

고만두풀 꺾으며
〈고만두라〉 합니다.

두손길 맞잡고
우두커니 앉았소
잔즈르는 愁心歌(수심가)
〈고만두라〉 합니다.

슬그머니 일면서
〈고만갑소〉 하여도
앉은대로 앉아서
〈고만두고 맙시다〉고.

고만두 풀숲에
풀버러지 날을 때
둘이 잡고 번갈아
〈고만두고 맙시다〉.

이 시에서 시적 소재로 등장하고 있는 고만두풀은 〈고만이〉라고도 불려지는 마디풀과 식물이다. 물가 진흙밭에 잘 자란다. 〈즌퍼리〉라는 말이 〈진펄〉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면 이 시에서 노래하고 있는 내용을 대체로 짐작할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잔즈르는 수심가〉라는 대목에서 〈잔즈르다〉라는 말이 문제이다. 이 말에 대해서는 앞서 인용했던 김용직 교수의 『김소월전집』이나 오하근 교수의 『정본 김소월전집』에 모두 〈흐트러진 것을 가리어 가지런하게 가두는〉이라는 동일한 주석이 붙어 있다. 그리고 김재홍 교수의 『한국 현대 시어사전』에도 이 말이 〈흩어진 것을 차곡차곡 가리고 가지런하게 거두다〉로 설명되어 있다. 그러나 이같은 설명은 이 시구의 문맥상으로 보아 어딘지 어색하다. 도대체 〈흐트러진 것을 가리어 가지런하게 가두는 수심가〉라는 것

이 무슨 말인가?

〈잔즈르다〉라는 말은 『국어대사전』(이희승)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북한의 『조선말 대사전』(제2권, 61면)에는 〈잔즈르다〉 대신에 이와 비슷한 두 개의 단어가 등재되어 있다. 〈잔주르다〉와 〈잔즈리다〉가 그것이다. 〈잔주르다〉라는 말은 〈조심스럽게 더듬적거리며 버르거나 머뭇거리다〉는 뜻으로, 〈북받치는 감정을 잔주르다〉와 같이 사용되기도 한다. 〈잔즈리다〉는 〈흠어진 것을 차곡차곡 가리고 가지런하게 거두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여러 연구자들이 모두 이 시구의 〈잔즈르다〉를 〈잔즈리다〉로 읽은 셈이다. 물론 이것은 잘못 읽은 말이다. 전체적인 문맥을 생각하지 않고 어휘의 유사성에만 매달렸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오히려 소월 시의 〈잔즈르다〉는 『조선말 대사전』의 〈잔주르다〉로 읽어야만 될 것 같다. 〈조심스럽게 더듬적거리거나 머뭇거리며 부르는 수심가〉라고 이 대목을 설명하면 문맥에 맞고 그 의미가 분명해진다. 시의 언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무엇보다도 그 전체적인 문맥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어법을 따지기 전에 먼저 시적 맥락을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